

## Exhibition Title / This is urush!

한국, 일본, 중국은 전 세계에 옻칠 문화예술을 견인하는 주요 나라입니다. 과거에는 나라 마다 사용하는 재료와 기법의 차이가 있어 각 나라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었지만 수십년 동안의 교류를 통해 세 나라의 특징을 구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현대에는 개성 넘치고 인기 있는 작가들의 작품 스타일에 의해 각 나라의 특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번 전시는 급변하는 한국 현대 옻칠 문화예술의 특징을 소개하는 의미 있는 자리인동시에 작가 개인에게 있어서는 옻칠 문화예술의 강국인 일본에 자신의 작품을 소개하는 중요한 무대이기도 합니다.

옻칠 문화예술은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과거 병풍이나 공예품을 장식하거나 의미를 부여하는 도안 및 그림이 현대 미술품의 하나로 독립되어 나타난 현상의 결과물인 평면 회화 작품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형물, 설치, 공예품 등의 입체 형식의 결과물입니다. 과거에는 옻칠 공예품이 고부가가치의 영역에 있었습니다. 화학도료의 발전과 생산 원가 절감을 포함하여 경제적인 문제, 디자인의 발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소에 의해 한때 도태 시기가 있었으나 고부가가치의 예술영역에서 옻칠은 새롭게 단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평면 그림 작가는 평면 옻칠작품을 표현하고, 공예가, 조각가, 설치예술가는 입체 옻칠작품을 제작하게 되면서 두 방향으로 구분됩니다. 더불어 다양한 배경의 전공 작가들에 의해 옻칠 예술의 특징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이번 전시에는 옻칠, 서양화, 동양화, 민화, 디자인, 설치미술, 과학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전공 작가들이 참여하였고 평면과 입체 두 방향을 모두 감상할 수 있어서 참여 작가들에 의해 나타나는 옻칠 예술의 결과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입니다.

과거 우리의 실생활에서 친숙하게 함께하며 뇌리에 새겨진 옻칠에 대한 모습과 현대의 수요에 맞춰 급변하고 있는 옻칠 문화예술의 모습을 비교, 분석하면서 감상한다면 인류의 유구한역사와 함께 발전해 온 옻칠 예술의 아름다움과 함께 변화의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의 첫 단추가 되는 의미 있는 전시가 될 것입니다.

참여작가: 노경실, 설민기, 설수경, 윤순원, 윤혜정, 이지영, 정광복, 최말애, 한호규

## Exhibition Title / This is urush!

Korea, Japan, and China are the major countries that drive lacquer culture and arts around the world. In the past, it was possible to clearly distinguis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due to differences in materials and techniques used by each country, but after decades of exchange, it has reached the point where it is impossible to distinguish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 In modern times, it is not an exaggeration to say that each country's characteristics are determined by the style of works by unique and popular artists. This exhibition is a meaningful occasion to introduc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modern lacquer culture and arts, and it is also an important stage for the artist to introduce his work to Japan, a powerhouse of lacquer culture and arts.

The arts and culture of lacquer are largely divided into two directions. One is a flat painting that is the result of a phenomenon in which patterns and paintings that decorate or give meaning to folding screens or crafts in the past are independent as one of modern artworks. The other is the result of three-dimensional forms such as sculptures, installations, and crafts. In the past, lacquer crafts were in the realm of high added value. There was once a period of culling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factors,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chemical paints and production costs, but in the realm of high added-value art, lacquer is being renovated and developed. A flat painter represents a flat lacquer work, and a craftsman, a sculptor, and an installation artist are divided into two directions as they produce three-dimensional lacquer work. In addition, the characteristics of lacquer art are also determined by artists from various backgrounds.

This exhibition was attended by artists from various backgrounds such as lacquer, Western painting, oriental painting, folk painting, design, installation art, and science, and it is a meaningful opportunity to appreciate the results of lacquer art by participating artists.

If we compare and analyze the images of lacquer engraved in our minds and the rapidly changing images of lacquer culture and art in line with modern demand, it will be a meaningful exhibition that will be the first step in our journey to find the beauty of lacquer art that has developed along with the long history of mankind.

## 작가 : 한호규

26*23*18cm	9*9*7cm	30*30*5cm
HOO?		
24*24*18 cm	14*14*10cm	30*30*5cm
23*23*10 cm	12*12*5cm	30*30*5cm
		55 55 55
16*16*8 cm	30*30*5cm	26*26*4cm
18*18*10cm	30*30*5cm	35*35*4cm
13*13*2cm	30*30*5cm	
13 13 26.11	30 30 3011	